

인터뷰

새로운 가치창출에 매진 할터...

제조기술과 오 영 준 대리



입사년월일 : '84. 12. 5
 출 생 지 : 충남 논산
 가족 관계 : 3남 2녀
 생활 신 조 : 자신을 이기자
 취미 · 특 기 : 축구
 감명깊게 본 영화 : 챔프
 키 : 170cm
 허 리 : 31인치
 시 력 : 좌 · 우 1.5
 나 이 : 33

하나의 완제품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정, 즉 차공구, 자동화, 공장개선 및 금형부분까지의 과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홍창맨

'84년 12월에 입사,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제품생산과정의 합리화 요소를 발견하여 기존의 생산체

제를 점차 개조해 나아가면서 가치창출을 증대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산업도 노동집약적 구조를 탈피하여 인력구조의 새로운 배치와 공장자동화로의 탈바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다루는 분야지요.”

오대리의 하루 일과는 출근과 동시에 퇴근시 까지 제조 현

장을 살피면서 공정의 체크, 현장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한 애로 체크 등 눈코뜰새가 없다. 本誌가 방문했을 시에도 책상에 앉아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하여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

충남 논산이 고향인오대리는 어린시절 남보다 어려웠었

다고 회고한다. “저는 검정고시로 학교를 다녔지요. 스스로를 달래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당시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이 스스로를 이겨내자는 것이었지요.

극기를 해야만 모든 주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저의 생활신조는 극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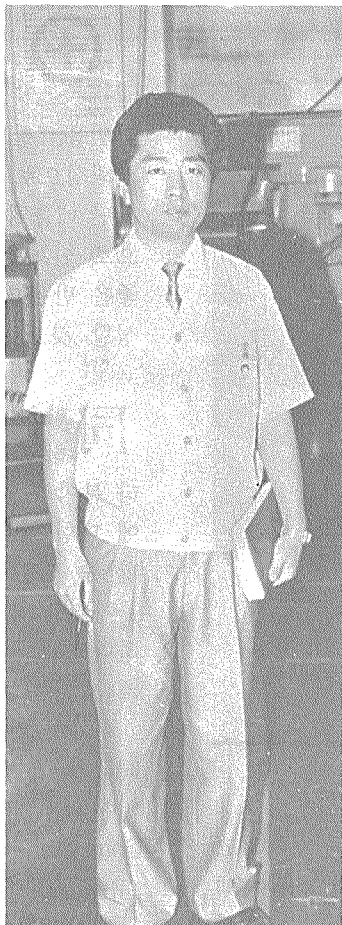
입사 당시 내성적 성격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그러한 경향이 없다는 오대리는 '88년도 본회 공로표창을 수상한 경력과 올해 과학의 날에서는 과기처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숨은 인재임을 짐작해 준다.

회사 자랑에 대해 오대리는 “저희 회사는 계측기 분야에 있어 전통과 규모면에서 국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나 기초과학기술계의 활용이 엄청나고, 제품의 신뢰성으로 사원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현재 오대리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장 제조기술과에는 근무연수가 가장 많은 베테랑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

자하시면서 호탕한 김호용 공장장님을 비롯, 잘 챙겨주시는 이세일 부장님, 아버지같은 노무과장님, 절친하면서도 업무상 말다툼도 자주한다는 신명철 대리 그밖의 분들, 분위기도 좋고 단합도 잘된다는 자랑이다.

오대리는 '85년 결혼 부인과



두딸이 있다. 큰 딸이 수경(5살), 작은 딸이 수민(3살)인데 퇴근후 집에 가면 두 공주가 너무 귀여워 함께 장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녀석들 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집에서는 말이 없고 무뚝뚝해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자상하게 해야 하는데 잘 안되요.”

하며 멋지게 웃어보인다.

나이 어린 후배사원들에게 젊은 20대에는 일에 미쳐볼 시기라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자아발전을 이루는 첩경이라고 조언도 잊지 않는다는 오대리.

앞으로 개인시간이 생기면 지금하고 있는 분야와 다른 재무, 회계쪽의 공부도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자기를 있게한 주위의 모든분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을 잊지 않는 오대리는 항상 자기혁신이라는 자세로서 흥창물산(주)의 초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도 작업자가 만족하고, 작업현장의 보dana은 가치창출을 위해 연구하고 있는 오대리의 앞날에 무궁한 전진이 있기를 바라며 本誌는 발길을 돌렸다.